



## 열일곱번째 이야기

# 네팔 아웃리치를 마치고...

###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땅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곤명, 카트만두, 비랏나가르, 다란을 거쳐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베데타르의 한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네팔 현지지도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들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성스레 준비한 화환과 환영의 춤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다소 어색했던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와 따뜻한 웃음으로 마음이 풀어졌다. 머나먼 한국에서 현지 격려차 온다고 해서 무척 좋아하며 기다렸다고 한다. 첫날은 조문



상 선교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참관했다. 이튿날은 수련회에 참석했던 현지 지도자의 대부분이 차로 40분 거리의 다란으로 내려왔고, 그곳 시온학교 강의실에서 마가복음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시온학교는 우리나라의 유용운 장로님과 조문상 선교사님의 지원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세워졌고,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함께 있으며, 기숙사까지 있어서 동부 네팔에서는 최고의 명문학교라고 한다. 교회가 같이 붙어 있어 자연스럽게 학교와 어우러져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 38도, 더위를 잊고 공부하다

이들간 각지에서 온 분들과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현지의 분위기와 그들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다. 히말라야의 산길을 며칠씩 걸어 온 사람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10시간이 넘게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온 사람, 이들이 세미나에 집중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현지 온도는 38도, 무척이나 더웠다. 실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수시로 일어나는 정전으로 그나마 환기를 시켜주던 선풍기마저 꺼지면 실내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거나 한눈을 팔지 않는다. 더위를 참는 게 아니라 잊은 듯하다. 누구 하나 먼저 쉬자는 말이 없고 때로는 오히려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순수하고 자연스런 열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토록 지칠 줄 모르고 집중하는 사람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모습이 감동으로 더 크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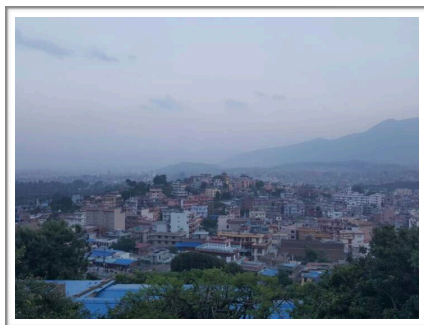
### ‘선교’가 뭐길래

조 선교사님은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며 하루 종일 세미나를 인도한다. 밤늦게 세미나를 마친 후 돌아온 숙소는 세미나실 못지않게 덥고, 물이 나오지 않아 샤워는커녕 세수도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 모기와 빈대에 시달리는 밤을 보내고 나서는 또다시 즐겁게 세미나 장소로 향한다. 영적으로는 즐겁더라도 왜 몸이 힘들지 않겠는가.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노고에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땅에 눈물과 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분들의 헌신이야 말로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BEE가 주어진 게 정말로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적일수록 잘못된 복음을 받아 들인다면 그 열정으로 더 크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BEE에 갈라디아서를 주시면서 적용의 대상으로 네팔 땅도 패키지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BEE야말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네팔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변질될 때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돌아켜 보면, 힌두문화가 깊게 뿌리박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앞으로의 사역 또한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섬기러 갔다가 받기만 한 사랑

현지에 계신 분들께 정말로 많은 신세를 졌다. 곤명에서 우리를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B선교사님, 카트만두에 도착한 날 공항까지 마중 나오고, 버스를 놓치자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주고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시간을 내서 가이드까지 해주신 라잔 목사님과 가족들, 따뜻한 웃음으로 마중 나오신 딜 쿠마라이 장로님, 다란의 카드가 목사님과 사모님, 이름은 모르지만 식사 때마다 늘 추가로 밥과 반찬을 얹어주던 자매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 신세를 졌다. 모두가 한결같이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보살펴 줬다. 순종과 섬김을 하게 해달라고 내놓은 기도제목이 무색해지고, 섬기기는커녕 섬김 받는 대상이 됐다. 어떻게 갚을지 지금으로선 방법이 보이질 않는데, 그 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에게 갚으려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게요.” 함께 했던 수아 자매가 돌아 올 무렵에 “이 분들을 언제 다시 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겠죠?” 라고 했을 때는 코끝이 찡했다.



### 아웃리치, 하나님의 선물

자유로운 나라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 자신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습관적인 교회생활을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 vs 가난한 나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힘겹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복음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삶. 나에게 어떤 삶이 옳은지 묻는다면 당연히 후자라고 말하겠지만 실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네팔 땅에서 부족하고 힘든 환경 가

운데서도 복음에 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그 동안 풍요한 환경가운데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빠지게 될 위험을 경고해 주셨다. 아웃리치를 출발하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민감하게 깨닫길 소망한다는 또 하나의 기도제목을 올렸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인내의 그 땅 사람들과 고난의 길을 두려워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나를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하셨다. 떠나기 전에는 하필 왜 네팔 땅에 가게 되었냐고 생각했으나, 돌아온 지금은 네팔 땅과 그곳의 사람들과 세계 각지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과 땀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1년간의 온비아 과정을 마치면서 네팔 아웃리치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머뭇거리던 나를 이끌어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글쓴이:김종량,편집:이경주)



글쓴이 김종량집사는 2008년부터 온누리 교회 교인이며 BEE에 출석한지는 일 년 남짓 되었다. 아내 이정분집사, 아들 대웅, 딸 소영을 둔 가정이자 평범한 회사원이다. BEE를 알게 되고 세미나를 들으며 복음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언젠가 자라난 모교회로 돌아가 BEE를 소개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

## BEE 소식

---

- 6.12~18일 인도네시아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6.8.15. 22~23 "찾아온 사랑을 찾아"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